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 (けいせい伝授紙子)에 관한 고찰

송연욱*

shinylotus@korea.ac.kr

Contents

머리말

1. 아코 사건과 문예화의 움직임
 2.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의 성립배경
 3. 선행작품과의 관계
 4. 우키요조시로서의 특징
- 맺는 말

Abstract

赤穂事件はその直後から文芸化の動きが見出される。特に1710(宝永7)年には変化する政治・社会的状況と組み合せて赤穂ブームともいえる現象が起り、歌舞伎や人形浄瑠璃、小説など多様なジャンルで取り上げられることになる。この年は5代将軍綱吉が死に、6代将軍家宣が継承した年であって前代将軍の諸政策が改革の対象となり、浅野家が微弱ながら再興に成功した年だった。このような状況が赤穂事件の関連作品の上演・出版に際して好機とされたのだろう。『けいせい伝授紙子』はそのようなブームの中で浮世草紙界では最初に反応した作品である。本作品は浮世草子というジャンルにふさわしく、赤穂事件の上に当世の事件である坂田藤十郎の紙子の話や野村増右衛門事件を好色的に描き出している。7-8年前の実際の事件に『太平記』の登場人物や赤穂事件を組み合わせ、全体の内容は実際の事件に沿って進めながら、その間に当世の逸話を繰り込むのである。また先行作品からの利用が目立つが、これは38年後の『仮名手本忠臣蔵』の基本的な創作態度が一致する部分であって、また『仮名手本忠臣蔵』の基本的な人物設定や事件の構成の枠はこの作品で既に完成されており、『仮名手本忠臣蔵』の成立に関して意味のある作品である。

Key Words : 赤穂事件、1710年、仮名手本忠臣蔵、浮世草子、けいせい伝授紙子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일어일문학과 박사과정.

머리말

1701(元祿14)년 3월 14일 아사노 다쿠미노카미 나가노리(淺野内匠頭長矩)가 기라 고즈케노스케 요시나카(吉良上野介義央)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듬해 12월 14일 오이시를 비롯한 47명의 낭인이 기라의 저택을 습격하여 기라의 목을 베고 주군의 무덤에 바치는 사건이 일어난다. 1703(元祿16)년 2월 4일 낭인들은 할복을 명령받으며 이 일련의 사건은 마무리 지어지는데¹⁾, 이 사건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고 실록·연극·소설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면서 허구화·문예화되어 간다. 아코 사건의 문예화에 관해서는 크게 시기별로 두 단계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첫 단계는 아코 사건부터 『가나데혼 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蔵, 이후 『가나데혼』)²⁾ 이전까지의 문예화이고 그 다음 단계는 『가나데혼』 이후의 문예화이다. 『가나데혼』 이전까지는 아코 사건 자체의 흐름을 바탕으로 내용을 전개해 가는 작품이 많은 데 비해, 『가나데혼』 이후로는 이 작품이 아코 사건과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게 되면서 『가나데혼』 자체가 고전화되어 여러 장르에서 다양한 형태로 재창조되어 간다는 점에서³⁾ 차이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중에서도 아코 사건이

1) 근세 일본사회를 뒤흔들었던 이 역사적 사건을 아코의 낭인들이 일으켰다고 하여 <아코 사건>이라 하며, 그 외에 겐로쿠(元祿, 1688~1704년)시대에 일어났다고 하여 <겐로쿠 사건> 혹은 <주신구라 사건>이라고도 부른다.

2) 1748(寬延1)년 8월 다케모토좌(竹本座)에서 초연된 닌교조루리(人形浄瑠璃) 『가나데혼 주신구라』(假名手本忠臣蔵, 竹田出雲·三好松洛·並木千柳합작)는 그 이전까지 만들어졌던 아코 사건 관련작품군의 총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나데혼 주신구라』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주신구라」 인기의 정점에 위치하며 아코 사건 이후부터 1748(寬延1)년 8월까지의 관련작품군을 집대성하여 만들어졌다. 이 작품이 대흥행을 거둔 이후로, 「주신구라」(忠臣蔵)란 아코낭인들의 복수담을 주제로 삼은 작품군의 총칭으로 사용되게 된다. 또한 「주신구라」는 역사상의 「아코 사건」(赤穂事件)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면서 고전화되어간다. 아코낭인의 습격과 복수담을 제재로 삼은 가부키나 조루리가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님에도, 그만큼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인기는 압도적이었다. 「주신구라」라는 명칭은 이로써 고정되고, 사건 그 자체가 무대의 이미지와 뒤섞이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역사상의 사건이 문학작품의 이름으로 불린다고 하는 도착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3) 『가나데혼 주신구라』 이후 아코 사건 그 자체가 지닌 극적인 요소와 이를 서민들에게 친근감있게 작품화한 『가나데혼 주신구라』의 높은 인기에 편승하려는 수많은 닌교조루리와 가부키가 만들어졌다. 에도시대에만 무려 80여편의 <주신구라 작품군>이 이 작품을 원류로 하여 새로 만들어져 상연되었고, 근대에 들어서도 연극의 상연은 물론이고, 「아코 사건」 혹은 「주신구라」를 다룬 수많은 소설이 새롭게 창작되었다. 또한 근대 대중문화의 총아인 영화와 텔레비전에서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실로 오늘날의 「주신구라」는 전통 연극으로, 각종 문학 작품으로, 그리고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로 그 영역을 확대해가며 일본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다. 다케다 이즈모

문예화 되어가는 최초의 작품에 초점을 맞추어 아코 사건의 초기 문예화 과정과 우키요조시라는 장르에서의 문예화 양상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아코 사건과 문예화의 움직임

1701(元祿14)년 3월 14일 에도성 안에서 조정 칙사의 접대역을 맡은 아코번의 영주 아사노 다쿠미노카미 나가노리(淺野内匠頭長矩)가 접대를 지도하는 역할을 맡은 기라 고즈케노스케 요시나카(吉良上野介義央)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아사노에게는 <즉일할복(即日切腹)>과 <가문 단절>이 명해지고, 아사노의 후계자인 동생 아사노 다이가쿠 나가히로(淺野大学長広)에게는 근신 처분이 내려졌다. 아코번 최고 가로인 오이시 구라노스케 요시타카(大石内蔵助良雄)는 야마시나에서 은거하면서 주군의 복수를 주장하는 에도의 급진파와 연락을 취하며 아사노 가문의 부흥을 위한 작업을 벌여갔다. 1702(元祿15)년 7월 바쿠후는 아사노 다이가쿠에 대한 근신 처분을 풀었지만 아사노 일족의 본가인 히로시마의 아사노 가에서 지낼 것을 명하여, 아사노 가문의 재흥은 허락되지 않는다. 이에 아코 낭인들은 기라저택 습격을 결심하게 된다. 마침내 1702(元祿15)년 12월 14일 오이시를 비롯한 47명의 아코 낭인이 기라저택을 습격하여 기라의 목을 베고 주군의 무덤에 바친다. 이듬해인 1703(元祿16)년 2월4일 낭인들은 할복을 명령받고 오이시를 비롯한 마흔 여섯 명⁴⁾의 유해는 센가쿠 절(泉岳寺)로 옮겨져 주군 옆에 묻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평화롭던 당시 에도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대사건이었고, 그 당사자인 무가계급 뿐만 아니라 일반민중 사이에서도 대단한 화제거리가 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동시대의 작가들이 놓칠 리가 없었다. 특히 닌교조루리와 가부키는 당시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대중예능이었다. 서민들의 관람료를 극단을 유지

의·최관욱김 『주신구라』(민음사, 2001) 작품해설 pp.208~211

4) 기라의 목을 베고 주군의 묘가 있는 센가쿠 절로 향하는 사이 데라사카 기치에몬이 사라졌다. 이에 관해 아시가루인 데라사카가 도망쳤는지, 성공에 관한 보고를 위해 오이시가 일부러 보낸 것인지에 관해 논쟁이 벌어졌으며, 따라서 주군의 복수를 감행한 아코 낭인의 숫자가 마흔 여섯 명인지 마흔 일곱 명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데라사카는 사건후 은둔생활을 하다가 1747년(延享4)년 여든 세 살의 나이에 숨져 다른 동지들과 함께 센가쿠 절에 묻힌다.

하고 있었던 만큼 서민들에게 인기 있는 사건이나 제재가 있으면 재빨리 이를 극화하여 상연하고는 하였다. 단지 바쿠후의 금령 때문에 동시대의 사건을 그대로 그릴 수 없었으므로 작품의 시대배경을 근세 이전의 시대로 설정하고 등장인물의 이름도 실명을 한두 자 바꾸어아만 하는 등의 제약이 있었지만, 아코 사건은 일찍부터 문예 화되기 시작하였다.⁵⁾

아코낭인들의 습격사건이 일어난 후인 1703(元祿16)년 정월에 교토 소운좌(早雲座)에서 지카마쓰 몬자에몬에 의한 『케이세이 미쓰노구루마』(傾城三つの車)가 상연되는데, 그 중간 부분에는 낭인들의 습격과 복수를 시사하는 장면이 있다.⁶⁾ 이어 낭인들이 할복한지 두 주 만인 1703(元祿16)년 2월16일에 이미 에도의 나카무라좌(中村座)에서 『아케보노 소가노요우치』(曙曾我夜討)⁷⁾가 상연되었으나, 사흘 만에 금지 명령을 받고 막을 내렸다.⁸⁾ 서민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이러한 문예화의 움직임이 일자 1703(元祿16)년 2월 바쿠후는 아에 관련극 상연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다.⁹⁾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으며 쇼군의 권위와도 관계있는 아코 사건이 작품으로 그려지는 것을 바람직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이다. 실제로 이 직후에 아코 사건을 다룬 작품은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¹⁰⁾

5) 전게서 『주신구라』 작품해설 pp.202~204

6) 伊原敏朗 『歌舞伎年表 第一巻』(岩波書店, 1957) p.306, 松島栄一 『忠臣蔵』(岩波新書, 1964) p.132

7) 이 작품은 잘 알려진 소가(曾我)형제의 복수담에 빗대어 만들었다. 1176년 이즈(伊豆) 지방의 호족인 가와즈노 스케야스(河津祐泰)가 구도 스케쓰네(工藤祐経)에게 살해당한다. 어린 두 아들은 어머니가 소가 씨와 재혼함으로써 형은 소가 스케나리(曾我祐成), 동생은 소가 도키무네(曾我時致)라 칭하게 되고, 1193년 성인이 된 소가 형제는 후지(富士)의 사냥터에서 신생 가마쿠라 바쿠후의 충신이 된 구도 스케쓰네를 죽여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 하지만, 그 복수전에서 형은 죽고 동생도 나중에 붙잡혀 처형당한다. 이들 소가 형제의 복수 사건은 널리 세상에 퍼져 『소가 모노가타리(曾我物語)』를 낳고 수많은 작품의 소재가 되어 후세에 전해진다.

8)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p.290. 이 이전에 1701(元祿14)년 3월 에도 야마무라좌(山村座)에서 성안에서의 칼부림사건을 그린 『東山榮華舞台』가 상연되었다는 설도 있으나 이는 『歌舞伎年表』 등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9) 『堂憲院殿御実紀』 卷四一七(『徳川実記』 所収)의 元祿16年2月の条 말미에 「此月前々も令せられしごとく、当世異事ある時、謡曲・小歌につくり、はた梓にのぼせ売ひさぐ事、弥停禁すべし。堺町・木挽町劇場にても、近き異事を擬する事なすべからずとなり(大成令)」 松島栄一 『忠臣蔵』(岩波新書, 1964)pp.132~133 재인용.

10) 土田衛 『新潮日本古典集成70 浄瑠璃集』(新潮社, 1985) 해설에 실린 『가나테혼 주신구라』 상연 전까지의 관련작품 일람과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해당시기 참조

2.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의 성립배경

1709(宝永6)년 1월 5대 쇼군 쓰나요시(綱吉)가 죽고 이에노부(家宣)가 뒤를 이어 6대 쇼군이 된다. 이에노부는 취임과 동시에 전대 쇼군의 측용인(側用人)들을 파직시키고 새로이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¹¹⁾를 등용하여, 폐해가 심각했던 전대 쇼군의 정책들을 개혁해 나갔다. 쇼루이 아와레미의 영(生類憐みの令)¹²⁾이 폐지되고, 화폐개주¹³⁾가 이루어졌다. 또한 그 해 7월에 쓰나요시 시절의 많은 죄인에 대한 대사면이 이루어져¹⁴⁾, 유배되어 있던 아코 낭인의 유자녀들에 대해 귀환이 허락되고, 아사노 다이가쿠도 8월20일 히로시마에서 에도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는다. 아사노 다이가쿠는 1710(宝永7)년 6월 쇼군을 알현하고, 9월16일에는 아와(安房)에 500석의知行을 얻어 복직하게 되었다. 마침내 일련의 사건은 결착을 보게 되고 아코낭인들의 가문재흥 바람은 이러한 형태로 실현되었다. 전대 쇼군의 정책들이 개혁 대상이 되고, 아사노 가문이 미약하나마 재흥에 성공했던 해여서 아코 사건이 작품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한편 1709(宝永6)년 2월 쇼군 이에노부가 쓰나요시 묘를 참배하기 위해 칙사가 파견되어, 그 향응접대역을 맡은 마에다 도시마사(前田利昌)가 지도역할의 오다 히데치카(織田秀親)를 사살한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1710(宝永7)년 5월 쇼군의 명령으로 축국을 시연하는 것과 관련하여 오카다 야스베(岡田安兵衛)가 야스다 우쿄

11) 에도시대 중기의 유학자·정치가. 기노시타 준안(木下順庵)의 문하생으로, 유교의 합리주의적 논리를 정치의 기초로 정착시키는 일에 노력하였다.(1657~1725)

12) 후사를 이을 아이가 없었던 쓰나요시는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승려의 말에 따라 흔히 '쇼루이아와레미의 영(生類哀みの令)', 즉 살아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명령이라는 전대미문의 금령(禁令)을 연이어 내려 개를 비롯한 모든 동물을 잡거나 학대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결과적으로 동물을 인간보다 우위에 둔 조치에 의해 수많은 개가 무리를 지어 에도 거리를 활보하는 진풍경이 연출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를 어긴 자는 사형이나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이 법령은 24년 동안 지속되다가 1709년 쓰나요시가 죽자마자 곧 폐지되었다.

13) 쓰나요시 정치 후반기에 바꾸후는 악화된 재정을 타개하기 위해 화폐를 개주한다. 기존의 게이초고반(慶長小判)에 포함되어 있던 금의 비율(84%)을 줄여 금함유량 57%인 겐로쿠고반(元禄小判)을 대량 주조함으로써 차액을 수입으로 거둬들이는 것이었다. 이 정책으로 재정은 한때 호전되었으나, 일반인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아라이 하쿠세키는 이 겐로쿠고반을 다시 개주하여 게이초고반의 금함유량과 같게 만들고 유통량을 제한하고자 하였다. 高埜利彦 編 『日本の時代史15 元禄の社会と文化』 p.69, p.73

14) 대사면은 8800여명에 이르렀다고 하며 쇼루이 아와레미의 영(生類憐みの令)에 의한 죄인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松島栄一 『忠臣蔵』(岩波新書, 1964) p.125

(安田右京)에게 달려들어, 오키카는 야스다의 무리들에게 살해당하고 야스다는 이후에 활복을 명령받은 사건이 있었다. 사회적 변화의 움직임과 더불어 당시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은 그 유사성에서 아코 사건을 떠올리게 하여 관련 작품군이 유행하는 계기가 된다.¹⁵⁾

이러한 정치·사회적 배경하에서 1710(宝永7)년에 연극작자들과 출판업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아코 사건 관련 작품들을 차례로 내놓는다. 우선 가부키에서는 1710년(宝永7)년 6월에 아코 사건을 「오구리한간」(小栗判官)¹⁶⁾의 세계와 연결시킨 아즈마 산파치(吾妻三八)작 『오니카게 무사시아부미』(鬼鹿毛武蔵鑑)가 오사카 시노즈카좌(篠塚座)에서 상연된다.¹⁷⁾ 이어 가을에는 교토 에비스야좌(夷屋座)에서 『다이헤이키 사자레이시』(太平記さざれ石)와 그 후일담 『사자레이시 고다이헤이키』(硝後太平記)가 상연된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교토의 만다유좌(万太夫座)에서 오기시 구나이(大岸宮内)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상연되었고, 오사카의 사카키좌(榊座)에서는 『아코의사』(赤穂義士)라는 적나라한 제목의 작품이 상연되어 대성공을 거두었다.¹⁸⁾ 닌교조루리에서도 오사카 다케모토좌(竹本座)에서는 지카마쓰 몬자에몬(近松門左衛門)의 『고반 다이헤이키』(碁盤太平記), 경쟁관계에 있던 오사카 도요다케좌(豊竹座)에서는 기노 가이온(紀海音)의 『오니카게 무사시아부미』(鬼鹿毛無佐志鑑)가 상연되어 경연의 형태를 취하였다.¹⁹⁾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우키요조시 계에서 첫 번째로 반응한 작품이 에지마 기세키(江島其磧)의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케이세이 덴주가미코』(けいせい伝授紙子)이다.

15)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p.394. 長谷川強 『新日本古典文學大系78』 解説, p.526

16) 「오구리한간」의 이야기는, 오구리가 大蛇의 화신과 맺어지는 것에서 시작되어, 히타치(常陸)에 유배된 오구리와 요코야마(横山)의 딸 데루테히메(照手姫)의 사랑, 요코야마 일문에 의한 오구리 독살로 이어진다. 소생한 오구리는 아귀아미(餓鬼阿弥)가 되어 구마노(熊野)로 보내진다. 오구리의 수레(車)를 데루테가 끈다. 본래 몸으로 돌아온 오구리가 데루테와 재회하고, 요코야마에게 보복한다. 이 셋교부시(説経節)를 시작으로 하여 많은 오구리한간 관련 작품군이 생겨난다. 服部幸雄外編 『歌舞伎事典』(平凡社, 2000), p.78~79

17) 이 작품이 대흥행을 거두어 「9월11일까지 120일간 장기상연되었다. 이로부터 교토와 오사카지역의 가부키극장은 남김없이 낭인들의 복수담을 상연하였다.(九月十一日まで百二十日間興行す。それより京坂の歌舞伎芝居残らず義士仇討を演ず。)」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p.394

18)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pp.394~395

19) 같은 시기에 가미가타의 극단 중 오사카의 야에기리좌(八重桐座)만이 아코낭인극이 아닌 기소 요시나카(木曾義仲)를 극화하였다. 「다른 극단은 모두 의사들의 복수극을 상연했으나, 이 극단만이 세계를 달리 하여 상연하였다.(他座が悉く義士仇討なるに、此の座だけは、世界を別にして当てたり)」 전게서 『歌舞伎年表 第一巻』, p.395

3. 선행작품과의 관계

에지마 기세키²⁰⁾의 『게이세이 덴주가미코』는 5권5책의 우키요조시(浮世草子)로, 1710(宝永7)년 8월 하치몬지야(八文字屋)에서 간행되었다. 1701(元禄14)년부터 1703(元禄16)년에 걸쳐 일어난 아코 사건과, 1710년(宝永7) 5월에 처형된 이세노쿠니(伊勢国) 구와나(桑名)의 마쓰다이라가(松平家) 가신 노무라 조에몬(野村増右衛門) 사건²¹⁾을 함께 엮은 작품이다. 제목은 낭인의 처 미치노쿠(陸奥)가 남편과 남편의 주군을 위해 본의 아니게 유녀일을 하게 되어, 몸치장을 꺼리고 가미코(紙子)를 입고 일하였더니 뜻한 바를 이루었고, 그 성품이 또한 다른 유녀의 모범이 되어 ‘그 사연을 전수(伝授)하는 가미코’라는 의미이다. 본 작품은 본래 이전해 11월에 죽은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를 추모하는 내용으로 씌여질 계획이었다가, 앞서 언급한 1710(宝永7)년 아코 사건 문예화의 바람을 타고 급거 내용이 변경되었다.²²⁾ 구성은 칼부림에 이르게 되는 발단부분에서 성을 건내주고 일당의 혈판-구나

20) 에지마 기세키는 이하라 사이카쿠의 사후, 가장 많은 우키요조시 작품을 남긴 에도 중기의 작자로 그의 우키요조시는 100편 정도로 추정된다. 가부키, 조루리 등 연극을 가까이 했던 그는 조루리본 『大伽藍宝物鑑』(1696)를 교토의 하치몬지야에서 출판한 것을 계기로 배우평판기(役者評判記) 『役者口三味線』(1699), 우키요조시 『けいせい色三味線』(1701)를 연이어 출판하면서 하치몬지야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다.(1666~1735)

21) 노무라 조에몬(野村増右衛門)은, 구와나(桑名)의 번사(藩士)였는데, 아명이 헤스케(兵助), 성인이 된 후에 닌조에몬(仁増右衛門)이라고 하다가, 후에 조에몬(増右衛門)으로 다시 이름을 바꾼다. 지혜와 기지가 넘치는 문무를 겸비한 무사로, 특히 정치경제면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구와나번에 그 재능이 중용(重用)되어, 이상할 정도의 출세를 하여 군다이(郡代)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이 고속출세를 질투하는 자들이 많아, 1710년 5월, 조에몬은 약간의 회계 상의 잘못을 추궁당해 결국 친족44명과 관계된 관리 370명을 사형, 추방, 파면 등의 처분을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 지나친 처분이 막부에 알려지자, 번주(藩主) 마쓰다이라 사다시게(松平定重, 1644~1717)는 8월 에치고 다카다번(越後高田藩) 11만 3000석으로 이봉(移封)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다. 마쓰다이라 사다시게는 역대 번주 중에서도 가장 재임기간이 길었고(1657~1710), 가신들로부터도 신망이 두터운 번주였으나, 이 사건의 실정(失政)때문에 영지가 옮겨진다.

22) 사카타 도주로(坂田藤十郎, 1647~1709)는 교토를 근거지로 했던 가부키배우로, 당시의 대표적인 立役(극단의 중심이 되는 배우)였다. 누레고토(濡事)· 게이세이고토(けいせい事)· 야쓰시게이(やつし芸)의 명수였으며, 도련님(若殿)이 유곽에 드나들다가 의절당하여 가미코(紙子)차림으로 단골 유녀를 찾아가는 등의 연기는 대인기를 끌었다. 도주로는 죽기 전 1707(宝永4)년에 교토 소운좌(京都早雲座)二の替狂言「石山寺誓湖」에서 동료배우에게 가미코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 애초에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에서 이 내용을 그리고자 했던 것이 당시 광고에 남아있다. 이 광고내용과 구상변경과정에 관해서는 長谷川強 『浮世草紙の研究』(桜楓社, 1991) pp.213~218에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어, 본고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이의 방탕한 유곽생활-적진에의 염탐-습격-주군묘소참배-낭인할복에 이르기까지 대략적인 아코 사건의 흐름은 좇고 있으며, 한편으로 본 흐름과는 연관이 적은 줄거리가 많이 끼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본 작품은 인물설정에 있어 『태평기』의 고노 모로나오(高師直)·엔야 한간(塩冶判官)·시주(侍從)·가오요(顔世)등을 등장시키고, 이들간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아코 사건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 인물설정과 관계는 예지마 기세키가 처음 시도한 것은 아니고, 앞서 같은 해에 교토 에비스야좌(夷屋座)에서 상연된 『다이헤이키 사자레이시』(太平記さざれ石)와 그 후편인 『사자레이시 고다이헤이키』(碓後太平記), 오사카 다케모토좌(竹本座)에서 상연된 『고반 다이헤이키』(碁盤太平記)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 선행 작품들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볼 수 있다.²³⁾

각 선행 작품과의 영향관계를 보면, 『다이헤이키 사자레이시』와 『사자레이시 고다이헤이키』와는 고노 모로나오·엔야 한간·시주 등 외에 낭인들의 우두머리격 인물인 오기시 구나이(大岸宮内)·리키타로(力太郎)·가마타 소에몬(鎌田惣右衛門) 등의 이름이 일치한다. 또한 『사자레이시』에서 가마타가 유녀와 결혼하여 주군의 노여움을 샀다가 엔야 한간이 할복할 때에 용서받는 내용(『텐주가미코』권1-3), 가마타의 처가 남편과 죽은 주군의 복수를 위해 유녀일을 하는 일(『텐주가미코』권2-1), 구나이의 유곽놀이(『텐주가미코』권3-2), 가지노 하에몬(梶の葉右衛門)이 일당에 합류하지 못하자, 복수계획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맹세로 할복(『텐주가미코』권2-4 야에가키의 할복)등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고반 다이헤이키』(碁盤太平記)에서 하치만 로쿠로(八幡六郎)의 모친과 처가 자해를 해서 모로나오에의 복수를 격려하는 내용(『텐주가미코』권1-5), 오카헤(岡平)의 이중첩자(『텐주가미코』미치노쿠의 이중첩자), 리키야가 오카헤를 베는 장면(『텐주가미코』권2-3에서 야에가키가 리키타로를 베는 장면)은 『텐주가미코』에서 인물만 바뀌고 취향은 그대로 이용되고 있으며, 오카헤의 죽음(『텐주가미코』권2-3 야에가키의 죽음) 과 습격장면에서 한차례 모로나오를 놓쳤다가 연기나는 아궁이를

23) 또한 극작품 외에도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 중에 일화들을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작품이 전거로 삼은 작품과의 영향관계에 관해서는 전게서 『浮世草子の研究』에 일부 다루어져 있어 참고로 하였다.

발견하고 그곳에서 모로나오를 찾아내는 장면(『덴주가미코』권5-5) 등은 표절에 가까운 이용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밖에 기타 조루리·가부키작품과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 『태평기』를 전체에 걸쳐 이용한 양상이 보인다. 한편 이에 관해서는 기세키 자신이 서문에 「사랑도 마음도 원한도 복수도, 하나로 엮어매어, 여러 취향을 잘 짜 넣어,(중략) 당대의 이로가부키, 그 각각의 연기들을 이곳에 옮겨, 보는 사람의 흥으로 삼을 뿐(恋も思ひも恨も怨も、1つにからげて諸分の道をもみこまれし、伝授紙子の火打石、堅き心をなぐさむる、当世の色歌舞伎、それぞれの思ひ入れを爰に写して、見ぬ人の興をなす而已)」라고 밝히고 있어, 많은 선행작품으로부터 부분적으로 내용을 섭취하여 소화해내는 것이 본 작품의 기본적인 창작태도임을 알 수 있다.

4. 우키요조시로서의 특징

본 작품은 여러 선행 작품들의 부분적인 장면을 이용하고 있음을 앞에서 언급하였다. 특히 아코 사건의 큰 줄거리, 인물명과 그 관계에 있어서는 선행 작품들을 거의 그대로 이용하거나 재구성하였다. 그런데 기세키는 아코 사건의 경과를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곳곳에 다양한 각색을 한 삽화(挿話)를 집어넣고 있다. 이 삽화들은 사건의 흐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편, 다른 선행 작품과 차별성을 갖는 부분이기도 하다. 작품 전체의 흐름과 기세키가 집어넣은 삽화와의 관련성을 보기 위해 본 작품의 각권 각책의 제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一之卷 第一 大切な千話文書でやる硯石
 第二 大役を思ふて堪忍を胸に居石
 第三 大身も事に臨で命を捨石
 第四 大手の木戸口待掛る腰掛石
 第五 大勢の牢人義を守心は金石
- 二之卷 第一 男増りの女郎紙子道中の容色
 第二 男世帯の部屋住は山寺の気色
 第三 男の云出す一言で見て取る目の色

- 第四 男同志の血判紅の血の色
 第五 男もならぬ女の覚悟顯る顔色
 三之卷 第一 色三味線引連て行朱雀の細道
 第二 色宿に金を借思案の深欲の道
 第三 色々の繰仕掛の有る手管の道
 第四 色顔結鄰の喧嘩用心の逃道
 第五 色から取り入る俄侍我目に見へぬ非道
 四之卷 第一 奢の増俄勿体鼻にかける立身
 第二 禍は増非道の大欲自滅の基
 第三 恋の増女の心いき捨られぬ白人
 第四 勢の増盜賊の茶碗酒引掛て取る代物
 第五 智の増る女の方便味方の助
 五之卷 第一 武家に育下人が無二の志
 第二 武士を止て売人にやつし事
 第三 武き心を和らげるは色の一徳
 第四 武功をかかやかすつむの蠟燭
 第五 武勇の働末の世の咄の種 (굵은 글자는 인용자)

굵게 표시된 부분을 보면 권1에는 각책 소제목에 모두 「大石」이 들어가 있고, 권2에는 마찬가지로 소제목에 「男色」, 권3에는 「色道」, 권4에는 「増」, 권5에는 「武」가 들어 있다. 권1에서는 엔야 한간의 칼부림 사건에 이어 할복 후 오기시 구나이(大岸宮内)가 등장하는데, 이는 곧 아코 사건의 오이시 구라노스케(大石内蔵助)를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 제목에 보이는 「大石」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권5에서도 「용맹한(武)」 복수장면이 그려지고 있어 자연스레 아코 사건을 상기시킨다. 그런데 권2와 권3의 「男色」 「色道」는 직접적으로 아코 사건과는 관련이 없이 호색적인 색채를 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2에서는 사이카쿠의 우키요조시²⁴⁾와 『태평기』의 내용을 이용한 오기시의 아들 리키타로(力太郎)의 남색이야기가 그려진다. 한편 리키타로에 관한 호색적인 이야기는 권2외에도 권4-3에도 나온다. 권3은 전체가 유곽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모로나오와 오기시가 유곽에서 지내는 장면이 묘

24) 이용된 작품은 다음과 같다. 『武家義理物語』 4-2, 4-4 『西鶴置土産』 4-1 『好色二代男』 6-5 『好色盛衰記』 5-3 『西鶴織留』 5-4 長谷川強 『新日本古典文学大系78』(岩波書店, 1989) pp.285~302 주석 참조

사된다. 또한 권4는 1710(宝永7)년 5월에 있었던 노무라 조에몬((野村増右衛門) 사건을 각색하여 그리고 있다. 본문에서는 노자와 마사에몬(野沢政右衛門)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권1에서처럼 제목에 「増」을 집어넣어 실명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노자와 마사에몬이 등장하는 부분은 권4외에도 권2-1, 권3-1, 권3-3, 권3-4, 권3-5에 이른다.

즉 제목으로부터 전체 줄거리를 단순화시켜 바라보았을 때, 시작과 끝은 아코 사건을 그리며, 중간에는 남색과 색도, 즉 호색물적 색채를 짙게 드러내면서 당대의 사건을 각색하여 집어넣고 있다. 한편 우키요조시란 이하라 사이카쿠(井原西鶴, 1642~93)의 『호색일대남』(好色一代男, 1682)이후 가미가타(上方)를 중심으로 출판된 풍속소설을 가리킨다. 겐로쿠(元禄)당시의 세태와 인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가나조시(仮名草子)의 계몽·교훈성에서 벗어나 현실주의적이고 오락적인 조닌(町人) 문학으로 일컬어진다. 겐로쿠(1688~1703)문화의 산물로 근세소설의 대표 장르 중 하나이다. 중세의 우키요(憂世, 불교의 무상관의 입장에서 전란의 현실인식, 피안)에서 근세의 우키요(浮世, 유교와 경제발달에 따른 현실적이고 향락적인 현실인식, 광의로는 현세를, 협의로는 호색을 의미)로의 변화를 상징한다. 자신들이 살아가는 당대에의 관심이 최고조로 달한 때에 등장한 장르라 할 수 있으며,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의 호색적인 당대사건의 묘사는 이러한 우키요조시의 장르적 특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맺는 말

아코 사건은 일어난 직후부터 문예화의 움직임을 보였으며, 1710(宝永7)년에는 각종 정치적·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아코 낭인물 붐 이라고 할 만한 유행이 일어가부키, 년교조루리, 소설 등 다양한 장르에서 소재로 채택된다. 이 해는 5대 쇼군 쓰나요시가 죽은 다음해이며, 전대 쇼군의 정책들이 개혁대상이 되고 아사노 가문 이 미야하나마 재흥에 성공했던 해여서 아코 사건이 작품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던 것이다. 본고에서 살펴본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는 그러한 유행에 우키요조시 계에서 첫 번째로 반응한 작품이다. 한편 1710년에 아코 낭인물의 붐을 타고

등장한 작품들은 그 이후의 관련 작품에 비해 뉴스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경과의 인식이 정착되기 전이라, 사람들이 사건에 대해서 매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이에 작자들은 마치 사건을 눈에 보는 듯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카마쓰의 시대조루리 『고반 다이헤이키』의 습격 장면이 그 전형인데, 사건을 그대로 각색한 것에 다름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본 『게이세이 덴주 가미코』는 우키요조시라는 장르에 걸맞게, 아코사건에 더해 당대의 사건-사카타도주로의 가미코이야기와, 노무라 조에몬 사건을 호색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7~8년 전 실제 사건에다 『태평기』의 등장 이름과 아코 사건을 끼워 맞추고, 실제 사건에 따라 내용을 진행시켜가며, 그 가운데 작품 출간 직전에 일어난 생생한 당대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는 것이다.

본 작품은 여러 선행 작품에서 영향을 받아, 인물설정은 『태평기』를 따르고, 인물들 간의 관계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있어서는 아코 사건의 흐름을 따르고 있다. 선행 작품의 표절에 가까운 이용에 관해서는 작자 자신도 서문에서 그 방법에 관해 밝히고 있는데, 이는 38년 후에 상연되어 대흥행을 거두고 당대에 이미 고전화된 『가나데혼』의 기본적인 창작태도와도 일치하는 바가 있다. 또한 『가나데혼』의 인물설정과 전체적인 사건구성의 큰 틀은 이미 본 작품에서 그 원형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가나데혼』의 성립과 관련해서도 본 작품이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다케다 이즈모 외·최관 옮김(2001) 『주신구라』, 민음사, pp.202~211
 伊原敏朗(1957) 『歌舞伎年表 第一卷』, 岩波書店, pp.290~394
 高埜利彦 編(2003) 『日本の時代史15 元祿の社會と文化』, 吉川弘文館, pp.69~73
 土田衛(1985) 『新潮日本古典集成70 浄瑠璃集』, 新潮社
 服部幸雄外編(2000) 『歌舞伎事典』, 平凡社, pp.78~79
 長谷川強(1989) 『新日本古典文學大系78』, 岩波書店, pp.285~302, p.526
 _____ (1991) 『浮世草紙の研究』, 桜楓社, pp.213~218
 松崎仁 校註(1993) 『近松浄瑠璃集 上』, 岩波書店

松島栄一(1964) 『忠臣蔵』, 岩波新書, pp.125~133

- ❖ 투고일 : 2006. 6. 30
- ❖ 심사일 : 2006. 7. 31
- ❖ 심사완료일 : 2006. 8. 16